

## [(사)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 인터뷰] 손영식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강혜란]

“청년농 육성·고령농 은퇴지원, 생애주기 맞춤으로 강화”

스마트물관리·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지은행·공간개발 등 6686억 사업 추진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손영식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은 '제10회 (사)한국쌀전업농경남도대회'를 맞아 경남 쌀전업농과 함께 쌀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식량인프라·친환경용수관리·농지은행·농어촌공간개발 등 6686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장 성능개선으로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고령농 맞춤형 농지 지원과 지역상생 활동을 통해 쌀전업농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10회 (사)한국쌀전업농경남도대회’ 축하 말씀

우리 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한국쌀전업농연합회의 경남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 등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오신 쌀 전업농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대회를 통해 경남의 쌀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식량인프라 1,488억원, 친환경용수관리 1,439억원, 농지은행 1,806억원, 농어촌공간개발 1,913억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총 6,686억원 달성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재해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및 배수장 성능개선사업으로 시설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있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산청 특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확대로 미래 농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도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농촌 지역소멸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구조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강화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만의 특화된 환경개선활동인 "물愛GREEN캠페인"을 추진하고있으며, 경남 관내 공공기관과 함께 농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ESG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터 개장, 농촌 일손돕기,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남지역 경지면적과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해달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관할 하며, 지역 내 농경지 4만 4천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658개소, 양수장 462개소, 배수장 351개소, 기타 취입보, 관정 등 총 2,473개소와 용배수로 11,478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과 우기 시 농경지 배수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등 첨단기술 도입에 대한 경남지역본부의 지원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현재 농업이 직면한 노동력 감소, 기후변화, 청년농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스마트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

히 경남의 경우 시설원예와 과수 등 고부가가치 작목이 많아 미래에는 스마트농업 도입이 지역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시 군과 협력하여 경남 내 총 52ha, 총사업비 1,074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밀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하여 의령군과 합천군에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선정된 거창군 스마트팜 육성지구 사업도 본격 착수하여 총 12.72ha의(사업비 520억)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수장(33.6%)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 대응과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 총 244억 원을 투입해 중앙관리소에서 주요 배수시설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양수장과 용수간선 등 핵심 용수공급 시설의 자동화·디지털화를 실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용수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 및 물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쌀전업농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은.

우선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스마트 물관리 확대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쌀전업농단체와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농촌의 지역개발, 청년농업인 육성 및 고령농업인 은퇴 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쌀 전업농단체와의 쌀 산업 거버넌스 조성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화합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올해 우리나라는 경남, 충청, 전남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강원 지역은 이와 반대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극단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는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일상화된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부산지방기상청 업무협약(MOU)을 통해 농어촌 물관리와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경상권 물관리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및 소통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기후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홍수 대응능력 확대를 위하여 사업타당성(경제성) 범위 내에서 농경지 배수시설의 용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전국에 5개소(경북상주1·경북포항1·충남공주1·전북정읍2)의 지하수 댐을 설치하여 가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의 가뭄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도 경남도청과 협력하여「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2026~2035년」에 지하수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대상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홍보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총 1,200억원을 확보하여 1,056억원(88.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고령 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094억원을 투입하고, 고령 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133ha를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은퇴농은 보유 농지를 원활히 매도 후 매월 일정한 직불금도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소득원이 확보됨으로써 은퇴 후 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농어촌드림”채널이란 한국농어촌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입니다. 해당 채널을 구독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용수관리, 생산기반, 지역개발사업 등을 비롯하여 유익한 농업정책정보를 정기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수신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최근 기후변화,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의 쌀 생산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해주신 쌀 전업농 회원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경남 농업을 지탱하

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쌀전업농 회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관리 개선, 농업기반시설 정비, 스마트 영농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쌀 전업농 회원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회원분들과 함께 경남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쌀 전업농 회원분들의 가정에 늘 풍요와 안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혜란 기자